

佛事 전념 20년
불교미술전시관
시립미술관 후원
특별 후원회 후원
☎ 02)733-4800

현대불교

'98 지방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바디

창간: 노대행/ 발행인: 김관진/ 편집인: 김광삼/ 논설고문: 고은/ 편집국장: 최정희/ 인쇄인: 김규석/ 등록번호: 다-3379/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2-1522 / 구독신청: 737-888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10월 27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제 243 호



“대화로 ‘사태’ 해결하자”

총무원 ‘대화대표단’ 논의...정화회의 “개별교섭중”

현대불교 연중특별제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치시다

비구니스님 차별

부처님은 인도의 사상계급을 타파해 모든 중생에게 불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임을 인식시켜 줌으로써 희망을 주셨다.

그러나 한국불교계에서 비구니 스님의 차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옥선(조선대·불교철학) 박사는 “팔경계는 부처님 재세 당시 사회 현실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생겼던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비구니 스님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표 종단인 조계종에서의 비구니 스님의 수는 48%에 이르고 있다. 비구니 스님들은 교계에서 제한적이나마 불교학 연구, 기암 수호, 사회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나, 종단의 핵심적인 역할은 항상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25개의 교구본사 주지 가운데 비구니 스님은 한 명도 없으며, 총무원장·교육원장·포교원장은 물론 각 부장급 스님들도 모두 비구니 스님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여성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국장급 이하 비구니 스님 총무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비구니 스님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94년 개혁 종단 출범 이후, 비구 종상의 종단운영으로 파생되는 폐단이 지적되자 비구니 스님이 8명의 종회의원 가운데 10석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대해 한 비구니 스님은 “10이라는 수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한국불교가 실질적으로 비구 스님의 종교에서 탈피했다는 것을 뜻하는게 아니다”고 고집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6월 비구니 스님이 직접 울(律)을 지도하는 봉납사 금강율원의 개원은 큰 의미를 갖는다. 비구니 스님이 계율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관습을 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비구니 스님에 대한 차별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스님들과 재가신도들은 금강율원의 개원과 같은 변화가 교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 교계에 평배해 있는 관습이 점차 없어지길 바라고 있다.

오종욱 기자(gobooou@buddhapia.com)

본사주지등 중재나서

총무원과 정화회의 양측 모두 대화를 위한 대표단이 구성되면 대화테이블에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총무원

총무원장 권한 대행 원택스님은 20일 교계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원로의장 종회의장과 상의해 대화에 나설 대표단 구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원택스님은 또 “지족(정화회의)도 대화하겠다는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우리에게 대화를 제외한 적은 없다고 말해 정화회의측에서 대화를 제외하면 응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정화회의

법원이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도경스님의 대변인 원학스님은 21일 “그동안 총무원측이 강경 일변도여서 대화가 잘 안된 것이 사실이었지만 교구본사주지연합회와 원로스님, 친분이 있는 종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인 대화는 계속해 왔다”면서 “조만간 가시

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학스님은 또 총무원측의 대표단이 구성되면 대화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종재노력

교구본사주지 등 종진스님들의 중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 본사주지스님은 21일 “몇명의 종진스님들이 총무원과 중앙총회 정화회의를 상대로 중재에 나섰다”며 “25일 이후 중재노력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정화회의측이 총무원장선거에서 고산스님이 아닌 제3의 인물을 총무원장으로 밀어 타협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정화회의가 총무원장선거라는 합법적인 공간을 활용한 ‘잠재 대결’로 선화하는 것이어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성운·김재경 기자(swjung@buddhapia.com)



“우리도 법장비구처럼” 19일 세종문화회관대강당에서 열린 ‘문수스님 불교음악 40년 기념음악회’에서 무대 위의 법장비구와 부처님 등 1천여 출연자를 비롯해 객석의 3천여 불자들은 교계 최초의 ‘미디어 불’ (정부가 작곡, 이인원 지휘)을 통해 성불의 발원을 세우며 한마음이 됐다. (관련기사 7면)

불교TV 19일 직장폐쇄

비노조원 중심 비상편성 방송 송출

노사 갈등을 빚어온 불교TV(사장 허문도)가 19일 낮 12시부터 직장 폐쇄에 들어 갔다. 불교TV 허문도사장은 18일 “회사의 기강과 질서를 회복하고 회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 폐쇄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지하 1층 편집실과 지상 1층 스튜디오 등 주요 사업장을

폐쇄 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교TV는 현재 송출담당자(MD) 2명, 제작PD 4명 등 비노조원 11명으로 구성된 방송제작 요원을 가동해 광고 및 재방송을 내보내는 등 비상편성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김주일 기자

징계자 재심청구 50명 넘을듯

조계종 29일 심사예정

해종행위 징계자 특별법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한 징계자가 22일 오후 6시 현재 말년의 징계의 받은 스님을 포함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청구 시한인 23일까지 해종특위법에 따른 징계자 94명 가운데 60% 가량이 재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무원은 재심청구자 숫자와 명단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청구 시한을 넘겼어도 지연된 사유를 밝히면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총무원의 한 부장스님과 정화회의의 핵심인사가 21일 저녁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정화회의측은 재심사 청구시 대폭적인 경감과 98년 이전 징계자에 대한 사면조치도 있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으며,

이에 대해 총무원에서는 재심 청구자의 대폭 경감에 동의할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원서 재심조정위원장)는 29일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동국대 19대 이사장에 녹원스님 재추대

학교법인 동국학원은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64회 이사회를 개최해 제19대 이사장으로 녹원스님을 재추대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11월 22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백과, 현상, 고산, 법장스님 등 종단과 견이사를 전인 재임하기로 결의했다. 재가이사 가운데 송석구·서준각·류주환 이사는 유임, 안채원 이사 대신 권노갑 총동창회장을 새 이사로 선임했다. 10월 11일자로 교육부로부터 해임승인된 현근스님 공석은 12월 1일 전에 이사회를 열어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김지연 기자

구산선문 참선 기행

11월 : 성주산문(성주사지)·무량사·장곡사

11월에는 무량곡사(801~888)에 의해 개창된 성주산문의 중심도량으로 현재는 오송식탑과 세 기의 상층식탑 동만이 외로이 남아 번성했던 옛 대가람의 면모를 대변해주고 있는 성주사지를 찾아갑니다.

인근에 있는 무량사에서는 매일당 김시습(1435~1493)의 영정을 모셔놓은 산신각과 경내 한가운데 등적하게 앉아 있는 2층 전각인 극락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상대웅전과 하대웅전 등 2개의 대웅전이 있는 장곡사도 참배합니다.

- ◇출발 : 11월 7일(일) 오전 7시, 조계사 앞
- ◇회비 : 3만5천원(종식 제공)
- ◇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 ◇입금계좌 :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디피아(www.buddhapia.com)에서 보세요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대한불교제과인회

퇴행성 관절염 무료수술 해 드려요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5주년을 맞이하여 노스님과 노인 불자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자들을 위한 무료 의료지원사업을 벌입니다. 동인천 가천의대 길병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의료지원사업은 노인이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퇴행성 관절염(무릎 엉덩이관절)에 대해 이수찬원장이 직접 수술을 집도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불교 복지향상을 발원하는 이번 불자의료지원사업에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규모: 1개월에 3명
- ◆지원대상: 스님·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자
- ◆지원내용: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 외견상 심하게 잘못거리거나 다리가 휘어진 사람
- ◆구비서류: 아픈 부위의 X-Ray 사진. 간단한 의료지원신청서(소정양식)
- ◆진료비 무료: 외래 및 입원 수술비 전액. 약대(1일 10,000원 인퐁) 및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본인 부담
- ◆접수: 현대불교신문사(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22-4162

※제1차로 무릎관절염 환자 백금쌍씨(64세·대구)가 수술받습니다.

주최: 동인천 길병원·현대불교신문사

인간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에서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을 보내드립니다

•현상공덕항 특별할인가 5,000원 (개당)
•판매원: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재조원: 금성 통상 (전국대리점 모집)

•행사기간: 1998. 9. 8 ~ 11. 22
•응모기간: 1998. 11. 30 까지
•추첨 및 발표: 1999년 12월 3일자, 현대불교신문게재
•응모방법: 행사중 「현상공덕항」을 구입하신후 포장지에 금박인쇄 되어있는 「현상공덕항」을 오려서 우편엽서에 붙여 보내주시면 추첨을 하여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마하몰 앞

◆경품내용

- 대상 : 1명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 여행권 2매)
- 1등 : 2명 (고승기념메달 8개/세트)
- 2등 : 3명 (고산다기 및 다기함/세트)
- 3등 : 5명 (고산다기/세트)
- 4등 : 10명 (문구암스님 법음, 법매집 각 1집)
- 5등 : 50명 (참선명상방석 각1개)
- 마하몰상 : 200명(법성계길망 각1개)

“수험생 입시성취 기도를 위한 현상공덕항”

기도와 함께 퍼워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부심니다

•서울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02)732-1522, 견지불교사 02)739-3032 •대구 : 불광불교방송사업팀 053)427-1011 •부산 : 삼광동 051)646-6255, 마하몰 부산지사 051)634-5114, 관음불교 051)908-5555, 대성불교사 051)332-0289, 부디피아 051)965-4383, 부산불교신문사 051)932-7393 •광주 : 미하몰 광주지사 062)375-9996 •대전 : 대진불교사 042)257-0318 •전주 : 전주불교신문 063)282-7054 •창원 : 경남불교신문 055)295-9911 •전주 : 마하몰 전주지사 069)747-0106 •밀양 : 부용불교사 052)352-3756 •속초 : 광명불교사 0332)631-7907 •전국 유망불교 유통망 및 사설 유통망